Symphony No. 4, Op. 29 "The Inextinguishable"

- □□

정보

Symphony No. 4, Op. 29, FS 76 — Det uudslukkelige

개요

곡명 : *Symphony No. 4*, Op. 29, FS 76, *Det uudslukkelige* (“The Inextinguishable”, 《꺼지지 않는 것》)
작곡가 : Carl Nielsen (1865–1931)
작곡 : 1914–1916년
초연 : 1916년 2월 1일 , Copenhagen Odd Fellow Palæet의 Musikforeningen 연주회 , Carl Nielsen 지휘
장르 · 작품 범위 : 네 악장이 이어지는 관현악 교향곡 전곡
기준판 : *Carl Nielsen Edition* II/4, Claus Røllum-Larsen 편집 (2000), CNW 28
규모 : 약 36분 , 관현악과 두 팀의 팀파니

IMSLP 악보 · 판본 목록
Wikipedia 작품 항목

Carl Nielsen의 *Symphony No. 4 Det uudslukkelige*는 네 악장을 중단 없이 잇는 관현악 교향곡이다 . 이 글은 작곡자가 완성한 관현악판 전곡을 다룬다 . 악장은 *Allegro*, *Poco allegretto*, *Poco adagio quasi andante*, *Allegro*의 순서로 이어지며 , 마지막 악장에는 두 팀파니 주자가 관현악단의 양쪽에서 주고받는 대목이 있다 .

제목에 담긴 생각과 작곡의 경과

1914년 5월 Nielsen은 아내 Anne Marie Carl-Nielsen에게 새 작품의 구상을 적었다 . 그는 선악이나 크고 작음으로 가르기 전의 ‘살아 움직이려는 것 ’을 음악으로 나타내고 , 여러 성격을 하나의 큰 흐름에 넣으려 했다 . 그해 여름에는 지인 Emil Holm에게 한 악장의 교향곡과 같은 작품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. 완성된 악보에는 네 악장의 표지가 남았지만 악장 사이의 휴식은 없으므로 , 초기의 ‘한 흐름 ’이라는 생각은 최종 형태에서도 이어진다 .

Nielsen 1916 1 14 27 . 2 1 Copenhagen Musikforeningen , 4 14 .

Det uudslukkelige ‘ ’ , Knud Jeppesen . 1 Thorvald Nielsen 1915 .

Allegro:

. Orrin Howard LA Philharmonic 3 .

Poco allegretto:

, , .

Poco adagio quasi andante:

. 2 , .

Allegro:

. *Glorioso* , . Raymond Knapp . E .

팀파니를 | 어디에 | 둘 것인가

이 곡에서 | 두 팀파니는 | 음량을 | 키우기 | 위한 | 중복 | 편성이 | 아니다. 두 주자가 | 서로 | 떨어져 | 소리를 | 주고받는 | 거리
자체가 | 피날레의 | 일부다. 악보 | 지시를 | 전한 Luisi 녹음의 | 비평은 | 두 번째 | 팀파니가 | 첫 번째와 | 마주 | 보도록
관현악단의 | 양 가장자리, 청중 | 가까이에 | 놓인다고 | 설명한다. 이 녹음에서는 | 양쪽의 | 타격이 | 분명히 | 갈라져
들린다.

지휘자 Sakari Oramo는 2014년 BBC Symphony Orchestra 연주를 | 앞둔 | 인터뷰에서 | 다른 | 선택을 | 밝혔다.
그는 | 두 팀파니를 | 무대 | 앞쪽 | 양끝이나 | 앞뒤로 | 놓는 | 배치가 | 자신에게는 | 효과적이지 | 않았고, 뒤쪽 | 양끝에 | 두어
오케스트라를 | 가로질러 | 응답하게 | 한다고 | 말했다. 이 말은 | 그가 | 지휘할 | 공연의 공간 | 선택이며, 기존에 | 발매된
Royal Stockholm Philharmonic 녹음의 | 배치를 | 입증하는 | 자료는 | 아니다. 같은 | 인터뷰에서 | Oramo는 Leif
Segerstam이 지휘한 | 제 4번에 | 바이올린 | 악장으로 | 참여했을 | 때 Helsinki 공연장의 | 현악이 | 충분히 | 들리지
않았다고 | 회고했다. 그래서 | 이 작품의 | 현악에 | 강한 | 에너지가 | 필요하다고 | 판단했고, 모든 | 악기군에 | fortissimo
가 적힌 | 합주에서는 단원들이 | 실제 | 균형을 | 맞추어야 | 한다고 | 설명했다. 팀파니의 | 위치와 | 전 합주의 | 균형은 모두
악보의 | 큰 소리를 | 청중이 | 구별할 | 수 있는 | 소리로 | 만드는 | 선택이다.

출판 | 정보와 | 자료

Wilhelm Hansen은 1916년 Leipzig에서 | 관현악 | 총보를, Copenhagen에서 | 관현악 파트를 | 출판했다. 1916년
총보 | 초판의 | 판번호는 | 16557이다. Royal Danish Library에는 | 스케치, 부분적으로 | 작곡자 | 자필인 | 연필 | 초고,
자필 | 인쇄용 | 총보, 작곡자가 | 손으로 | 고친 | 초판 | 소장본이 | 남아 | 있다. 자료가 | 여러 | 단계에 | 걸쳐 | 남았기 | 때문에
인쇄된 | 한 장의 | 악보만으로 | 작곡 | 과정 | 전체를 | 대표할 수는 | 없다.

Claus Røllum-Larsen이 편집한 2000년 Carl Nielsen Edition II/4는 작곡자가 | 정정한 | 초판 | 소장본을
주자료로 | 삼고, 인쇄용 | 자필 | 원고와 | 연필 | 초고를 | 대조했다. 초고의 | 일부 | 변경은 | 초판에 | 실리지 | 않았으며,
편집자는 | 그 차이를 비평 | 보고서에 | 기록한다. 피날레의 | 목관 ·호른 | 성부 | 일부에는 | Nielsen의 요청으로
Jeppesen이 1915년 말 보완한 | 이중음이 | 들어 있다. 작곡자는 | 이를 고쳐 | 인쇄용 | 원고에 | 반영했다. 이 경위는
해당 | 대목의 | 악기 | 배치가 | 작곡 | 중 실제로 | 조정되었음을 | 보여주지만 | , 최종 | 작품의 | 작곡자를 | 둘로 | 나누는 | 근거는
아니다.

소요 | 시간

전곡은 | 대체로 | 약 36분이다. Michael Schønwandt와 Danish National Symphony Orchestra의 Dacapo
녹음에서는 | 네 부분이 | 약 12분 30초, 5분, 9분 30초, 9분 40초로 | 나뉜다. 다만 | 이 발매의 | 제 2악장 | 트랙은
악보의 | 빠르기 | 표시보다 | 여덟 | 마디 | 늦게 | 시작하므로 | , 이 분 수는 | 악보의 | 정확한 | 경계가 | 아니라 | 공연 | 길이의
대략적인 | 감각을 | 준다.

편성

악기군 | 관현악판 편성

목관	Flauto 3(제 3주자가 Piccolo 겸주), Oboe 3, Clarinetto 3, Fagotto 3(제 3주자가 Contrafagotto 겸주)
금관	Corno 4, Tromba 3, Trombone 3, Tuba
타악	Timpani 두 세트 , 주자 두 명
현악	Violino I·II, Viola, Violoncello, Contrabbasso

다른 타악기를 더하지 않고도 Nielsen은 두 팀파니를 서로 다른 위치에서 울려 관현악 전체의 움직임을 흔든다 . 이 배치와 악장 간 연결은 실제 공연에서 연속적으로 준비해야 할 조건이다 .

주요 레코딩

Fabio Luisi와 Danish National Symphony Orchestra가 2022년 DR Koncerthuset에서 녹음한 Deutsche Grammophon 음반은 두 팀파니의 위치가 뚜렷이 갈리는 연주다 . *The Absolute Sound*의 Ted Libbey는 제 3악장 첫 현악의 강한 소리와 피날레의 공간적인 팀파니 교환을 특히 높이 평가했다 . 그 비평에서 두 주자는 양쪽 앞자리에 배치돼 있어 Oramo가 인터뷰에서 말한 뒤쪽 배치와 실연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.

Edward Gardner와 Bergen Philharmonic Orchestra의 Chandos 녹음에 대해 *Gramophone*의 Edward Seckerson은 크게 울리는 합주를 단계적으로 쌓고 안쪽 성부와 작은 음량을 또렷하게 만드는 점을 높이 샀다 . 그는 제 2악장 목관의 가벼움과 제 3악장 현악의 강도를 분명히 대비시키면서도 , 전체가 지나치게 통제되어 즉흥적인 힘은 줄었다고 느꼈다 . 이는 두 연주의 우열을 확정하는 판단이 아니라 , 같은 네 악장의 연결을 선명한 설계와 강한 폭발력 사이에서 어떻게 다르게 실현하는지 보여주는 비평이다 .

주요 자료

- Royal Danish Library, *Catalogue of Carl Nielsen's Works*, CNW 28: 작품 번호 ·악장 순서 , 자료 목록 , 초연과 첫 공개 연주 .
- Claus Røllum-Larsen 편집 , *Carl Nielsen Edition* II/4 서문 ·비평 보고서 : 작곡가의 편지와 완성 경위 , 초판 ·자필의 관계 , Jeppesen의 회고 .
- Raymond Knapp, “Music as Life: Authority and Meaning in Nielsen's Fourth Symphony”: 표제 문구의 작성 경위 , 전쟁 관련 후대 회고와 피날레 팀파니 진행의 분석 .
- LA Philharmonic, Orrin Howard의 작품 노트 , Wise Music Classical 작품 목록 : 악장 간 선율의 연결 , 편성 및 전곡 소요 시간 .
- Colin Anderson의 Sakari Oramo 인터뷰 : 현악 투사력과 합주 균형 , 두 팀파니의 무대 뒤 배치 .
- Dacapo, Schønwandt/Danish National Symphony Orchestra 발매 목록 : 작품과 악장별 대략적인 연주 길이 및 트랙 구분 .
- Ted Libbey의 Luisi 음반 평 , Edward Seckerson의 Gardner 음반 평 : 팀파니 공간감과 관현악 균형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 .